



기생충 박멸을 목전에 두고

윤 석 우

2000년까지 국민모두에게 건강을 주자

우리나라 농촌보건의 선구자이시며 평생을 농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故 이영춘(李永春) 박사는 1948년 그가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하였을때 결핵(結核), 성병(性病), 기생충병(寄生虫病)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삼대민족독(三大民族毒)이라고 갈파하고 이의 근절이야말로 시급하며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1948년에 의사가 된 나는 전북개정(全北開井)의 그연구소에 가서 이일 저일을 하면서 농촌에서의 기생충감염에 관한 연구조사도 해보았다. 그 결과는 당시의 학회에서도 발표했지만 주민의 90퍼센트 내외가 각종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회충이 최고이며 십이지장충(구충)이 다음이고 지역차는 있었지만 간디스토마의 감염율도 높았다.

그때로부터 근40년이 되는 오늘날 기생충감염율은 격감하였다.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에 의하면 1985년 가을에 실시된 학생기생충검사결과 전국의 초·중·고교생 약 800만명에서 감염율은 불과 3.6퍼센트이며 그중 서울에서의 결과를 보면 단지 0.9퍼센트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왜 이와같이 기생충병이 줄었을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다. 보건사회부를 비롯한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을 들수있고 기생충박멸협회의 꾸준한 노력을 크게 평가한다. 인분을 농사에—특히 채소재배에—쓰지못하게 하며 생식을 안하고 특히 민물생선을 날로 먹지 못하게 하며 정기적 기생충검사

를 실시하여 감염자에게는 약을 먹게 한다든지 하는것들은 기생충감염율을 격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나 협회가 소리높게 떠들고 야단을 친다고 해도 국민 각자가 자기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안한다면 그야말로 밑바닥뚫린 바케츠에 물붙는격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 국민의 보건의식이 높아지고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긴 결과라고 본다.

내가 20년간의 해외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그간의 여러가지 보건활동을 볼 때 기생충박멸사업이 그중 눈에 띄게 향상된게 아닌가 한다. 그런데 또 한가지 관심깊게 생각한 것은 기생충박멸협회가 핵심이 되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창설해서 국민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른나라에서 보면 한가지 사업—예를 들면 마라리이나 천연두 근절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사업기구가 해산되고 훈련원요원들은 실직하는 예를 더러 보았다. 이점 기협(寄協)이 택한 정책은 매우 현명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한 2000년 까지애 주민모두에게 건강을 주자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운동의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법은 일차보건의료를 주민모두가 골고루 받게 하는데 있다.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일치된다. 주민스스로가 무엇이 그들의 보건문제인가를 인식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끌고나가는—즉 하행식—방식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나가는—즉 상행식—방식이다.

위에말한 삼대민족독—결핵, 성병, 기생충병—중에서 기생충병은 먼저 골인 될듯하며 다음은 아마도 결핵이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근자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술, 마약을 삼대독이라고도 한다. 우리 주위에는 마약은 그리 큰 해독은 아직 적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담배와 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랭킹의 상위에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어느곳에 중점을 두고 사업목표를 설정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담배와 술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이것은 거대한 문제일 것이다. 아마도 건강관리협회 단독으로는 좀 힘겨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일을 전개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이 문제는 시급하다. 틀림없이 많은 개인과 단체의 공명을 얻을 것이다.

(필자=한국인구보건연구원·초빙 연구원·의박)